



9면

무주군 제4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음 1월 17일)

제319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전주매일



도레이첨단소재가 PPS 수지 생산설비 추가 증설에 나선다. 사진은 김관영 도지사(사진 오른쪽)가 지난해 12월 15일 도레이 일본 본사를 방문해 닛카쿠 이키히로 사장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산업에 추가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도레이첨단소재, 새만금에 PPS 수지 2호기 증설 나서

내년 가동 국내 최대 연산 1만3600t 규모... 국내 공급망 안정화 기여 전망

김관영 도지사, 일본 본사까지 찾아 추가 투자 요청 노력 '결실' 맺어

전북 새만금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가 1,000억원 규모의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생산설비 추가 증설에 나선다.

이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일본방문 중 도레이 일본 본사를 찾아가 닛카쿠 이키히로 사장에게 추가 투자를 요청한뒤 이뤄진 증설투자여서 기업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진정성이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레이첨단소재(대표 전해상)가 새만금산업단 군산공장에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약 1,000억원, 연산 5,000톤 규모의 PPS 수지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도레이첨단소재의 이번 증설을 통해 국내 최대인 연산 1만3,600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PPS 수지의 주원료인 황화수소나트륨도 연산 4,800톤 규모로 증설해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콤팩트까지 일관(一貫) 생산공장으로 위치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PPS는 내열성, 내화학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전기자동차의 경량화 및 전장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기기, 주택설비 및 산업용 부품 등으로 수요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등 2028년 약 16만톤 수요가 예상되는 고기능 소재로 꼽히고 있다.

전북도는 미래 자동차 핵심 소재인

PPS 생산 확대에 전북 소부장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2016년에 새만금산업단지 최초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이번 추가 증설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레이첨단소재의 추가 증설을 적극 환영하며 기업이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전북에 오는 기업은 성공한다는 성공스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

도 자치경찰위 올해 주요업무계획

‘지역 특색 반영 치안환경 조성’이 목표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 전략 수립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목표를 ‘지역특색을 반영한 치안 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서비스 강화 등 2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6개 실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셀테드)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도민이 참여·주도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행안부 공모로 확보된 특교세(3억원)를 활용하는 등 4개 사업 14억3,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43억2,000만원의 ‘이동안전지킴이’ 사업,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사업 등 어린이·여성·노인 등 사

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10개 사업 50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지역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을 위한 협력단체간의 협업체제도 한층 강화된다.

자치경찰 도민 정책자문단을 추가(41명, 총 178명)하고, 치안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며, 도민제안 자치경찰 정책 제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로써 그간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해왔던 것을 주민맞춤형 주요 시책 홍보로 전환해, 아태마스터스, 챔버리 등 대규모 행사장과 도내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 방문·홍보하고, 버스 순찰차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책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28일 발표한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자치경찰제 문제점(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 자치경찰 위원회 지위 역할의 한계 등) 개선이 기대된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는, △자치경찰을 직접 산발해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아니라 시·도의 자치경찰이 전담,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 보장, △교통법칙금, 과태료 등 재원을 활용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총리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 후, 현행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과위원회에서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및 이원화 시범 실시 방안 등을 논의 중으로 올해 3월 중에 개선사항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현규 위원장은 “2023년도 자치경찰의 목표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예산편성 원년으로, 전북도의회, 전북경찰청과 소통하고 협업관계를 강화하여, 전북 자치경찰이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소방본부, 공정·신뢰 회복 위한 대책 마련을”

김이재 도의원, “감찰, 보고내용·조치사항 불일치” 주장

“소방공무원 심신건강·도민 안전 최우선 고려해야” 주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4)이 6일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감찰에 대한 소방본부의 공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은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보고내용과 조치사항이 매우 불일치해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방본부의 공정과 신뢰 상실은 소방본부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4월 간부급 소방공무원 A씨는 술에 취한 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로 맥주병을 투척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에



(2개월)을 받았다.

이에 소방노조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전형적인 숨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하며, 간부급 소방공무원 A씨를

승진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승진한지 1년도 채 안되어 폭언 등 감질로 또다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중징계에서도 수위가 제일

악한 징직 처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이재 의원은 “소방본부는 화재의 예방·진압, 구조·구급 업무를 통해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 기구로서 그 역할만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에 노고가 많을 것인데 간부공무원의 불필요한 행동과 소방본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건전한 조직 분위기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방본부의 공정과 신뢰 상실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과 도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잃어버린 공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